

# 김도읍 “라임 김봉현 ‘로비 폭로’...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아”

### “김봉현 의혹 제기하자 秋나서고 興공격”

###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18일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자신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며 수사가 ‘끼워 맞추기식’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5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에 장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 전 회장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을 지시했다”며 “여기에 민주

당도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임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에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김 전 회장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제기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결과물”이라고 했

다. 특히 “추미에 법무장관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크다”며 “검찰개혁을 방자해 직제를 개편했고 그 자리에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검찰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침묵에 들어갔으며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그 제안에 침묵했던 것은 바로 민주



김도읍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병준 “김종인, 시장 후보 안 보인다고?...차라리 문 닫아라”

### “사람 키우는 것 지도자 책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에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무슨 낯으로 공당이라 하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또 그 지도자라 하여 얼굴을 들

고 다니나”라고 적었다.

이어 “경선 절차와 원칙을 만들기 위해 경선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며 “그래 놓고 경선후보들을 죽여 어떻게 하지는 것인가. 국민과 당원이 참여할 경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시에 홀로 누구를 낙점해 데려오겠다는 의지로밖에 더 읽혀진나”라고 했다.

또 “사람을 키우는 것도 공당과 그 지도자의 책무 중의 하나”라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좋은 인물로 다듬어주는 것이 도리이다. 인물

을 세울 때 세우고, 영입할 때 영입하더라도 선후가 있다. 당에 사람 없다는 그런 자해적 발언이 앞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오히려 지휘”라며 “백반을 양보해 훌륭한 사람만 모시고 오면 된다고 하자. 지휘자가 나름 역량 있는 연주자까지 망신을 주며 홀로 독주를 하는 오케스트라에 관중이 물리겠는가. 또 그런 오케스트라에 훌륭한 연주자가 지원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뜨거운 감자’ 옵티머스, 서울중앙지검 격돌 예고

### 오늘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국감...여야 공방 거셀 듯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19일 열린다.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각 검찰청의 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중 ‘옵티머스 사건’, ‘김연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국감장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등으

로 술한 논란을 만들었던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공개석상에 취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야당에서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기 의혹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지검장이 로비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조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김·연유착 의혹도 재차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사팀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도 벌어져 서울고검이 검찰에 착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겪었던 갈등 및 폭행 논란에 대한 이 지검장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인 조 고검장에게도 검찰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감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사전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미에 법무부장관 아들인 김·연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뒤늦게 착수된 배경,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김 지검장의 답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오는 22일엔 대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